

초록 눈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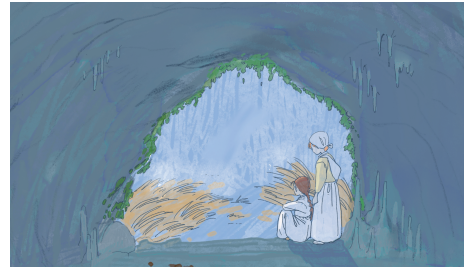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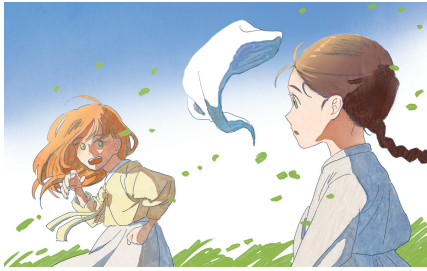
“아미산 골짜기엔 초록 눈의 도깨비가 살아.”

독후활동지

이름

학교 | 학년

지도교사



아미산 골짜기에 숨어 사는 초록 눈동자의 ‘끝단이’는
우연히 자신처럼 초록 눈동자를 가진 ‘양희’를 만난다.

할머니께 설렁탕 만드는 법을 배우는 끝단이와

화약을 만드는 것이 꿈인 양희는

어느 날, 끝단이네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염 씨 할머니 댁에 다녀오던 중 비 오는 산속에 고립되어 버리는데…….

끝단이와 양희의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같은 점

다른 점

끝단이네 아버지의 사연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아버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조선에 왔다. 북방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갈 곳을 잃은 [] 들이 이곳 조선으로 건너 왔다는 말을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 이라는 말 대신 '북방 오랑캐'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 끝단이는 그 말이 너무 싫었다. 조선 땅에서 말썽을 일으킨 [] 들도 있었다지만, 아버지는 그저 다른 조선의 아버지들처럼 성실히 일하고 자식들을 보살피 주는 소중한 사람 중 하나였다.

▶ 정답: []

아래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아버지, 끝동이랑 동네 아이들이 버려진 땅을 두엄으로 가득 덮었어요. 어떤 애는 멀리 던졌고, 어떤 애는 자기 발 앞까지만 던졌어요. 각자 두엄을 던진 곳이 달라서 골고루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 모두 같은 힘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땅이 기름지진 않았을 거다. 각자 갖고 있는 것이 달라서 결과가 더 좋았구나.”

끝단이는 걸음을 멈췄다. 양희가 두엄을 주워 냄새를 맡았던 곳이었다.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록 눈의 아이들』을 읽은 소감을 더해 양희와 끝단이에게 짧은 편지를 써 보세요.

양희와 끝단이에게

나와 친구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친구들과 이런 점이 달라요.

나는 이것에 대해

라고 생각해요.

『초록 눈의 아이들』을 모두 읽고, 친구들을 인터뷰해 봅시다.

()야, 『초록 눈의 아이들』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